

神과 唯識學의 相關性에 관한 文獻的 考察

柳 熙 英* 尹 祥 熙**

目	次
I. 緒 論	資料 3 前六識의 分類
II. 資料調査 및 研究方法	IV. 總括 및 考察
III. 本 論	V. 結 論
資料 1 五臟神의 分類	
資料 2 前六識의 概括	參考文獻

I. 緒 論

唯識佛敎는 人間存在의 有限性과 人間認識의 限界性, 深層心理와 거기에 잠겨있는 利己性의 實態를 正面에서 추구하며,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마음의 省察을 바탕으로 하면서 探索하는 것이다.

現代의 心理學이 人間の 心理를 추구하는 目的이나 方法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佛敎 또한 2千 수 백년 동안 人間の 心理를 注視하며 省察하여 그 마음의 實態를 잡고 거기에 구원과 깨달음을 모색하여 왔다.¹⁵⁾

省察을 통해서 心層心理, 心層意識이라고도 불려질 意識의 끝까지 추구해 갔으며, 적어도 4, 5세기에는 그 心層의 領域이 論理化 되었으며, 조직화 되었고 自覺되었다.¹⁵⁾

그러한 흐름속에 한층 더 그 면에 심혈을 쏟은 또 하나의 흐름이 바로 唯識佛敎이다.

唯識은 마음을 主體的 側面과 作用的 側面으로 분석하여 把握하였는데, 그중 主體的 側面에는 八識이라는 方法으로 把握하고 있

다.

八識이란, 前六識인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과 第七識인 末那識과 第八識인 阿賴耶識으로 人間の 마음이 表層에서 深層을 向해서 여덟가지의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醫精神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情志에 對해서 배워오던 중에 五臟神인 魂·神·意·魄·志와 佛敎哲學의 하나인 唯識學에서의 八識 中 前六識이 人間の 마음을 把握하는 구조적인 면과 내용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이 발견되기에 본 著者는 五臟神과 前六識의 相關性에 관한 文獻을 考察한 바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資料調査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査

國內外 古來의 文獻 6篇에서 五臟神에 관한 記錄과 佛敎學中 唯識學에 관한 文獻 20편중 前六識에 관한 記錄을 拔萃하여 이를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院

2. 研究方法

- 1) 各 文獻의 分類에 依하여 五臟神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하였다.
- 2) 前六識의 概念 및 概括的인 內容을 정리하였다.
- 3) 前六識을 각각 分類하여 정리 하였다.

Ⅲ. 本 論

神은 人體生命의 活動現象을 總稱하는데 神·魂·皓·意·知·思·慮·智 등의 內容을 包括的으로 다루며, 옛사람이 發見한 마음은 먼저 前五識과 意識의 두 개였다.¹⁾

前五識은 眼·耳·鼻·舌·身이며, 各各 작용, 즉 五官을 통한 認識이 그것이다. 意識은 知覺·知性·感情·意志·想像力 등이며, 말하자면 우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마음이니 精神·意識이라고 부르고 있는分野이다.¹⁵⁾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調 查 內 容

□ 資料 1. 五臟神의 分類

1) 魂

<東洋醫學大辭典>

人之精神也。「素問六節藏象論」肝者魂之居也。「靈樞本神篇」隨神往來者謂之魂。「又」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妄不精。不精則不正當人。陰縮而攣筋。兩脇骨不舉。毛悴色夭。死於秋。「雞經四十二雞」肝主藏魂。

<中醫名詞術語選釋>

「素問宣明五氣篇」肝藏魂。魂屬於精神活動。肝氣疏泄條達而情志正常。叫做藏魂。因肝病而多惡夢。神志不安所謂魂不藏。肝藏魂。體現了精神活動和內在臟器的聯系。

<東醫精神科學>

魂舍는 血이니 臟은 肝이며, 精神活動의 範疇內에 屬한다. “肝藏血. 血舍魂. 隨神往來者之魂” 魂과 神은 모두 精神活動을 說明하는 것이니 魂은 神이 往來함에 隨伴된다.

<中國漢方醫學叢書>

肝은 外로부터의 攻擊을 막고 對策을 考慮하며, 病邪에 低抗하는 機能을 갖는다. 故로 “素問”의 靈蘭秘典論에는 “肝은 將軍의 官, 謀慮를 出한다.”라 말하고 있다. 謀慮란 一種의 思惟活動의 體現이다.

<臟腑證治與用藥>

說明人的部分精神意識活動是屬於肝的攻能。如「靈樞本神」說：“隨神往來者謂之魂…”「左傳注疏」說：“附氣之神爲魂”魂爲神所屬，如夢寐恍惚之境 皆屬之，因其隨神往來。

<臟象概說>

祖國醫學認爲人的精神志活動除了爲心所主宰外，與肝也有密切的關係。「素問六節臟象論」說“肝者…魂之居也。”「靈樞·本神篇」進一步指出“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妄不精”這裏所說的“謀慮”“魂”“悲哀”都屬於精神意識的範疇。

2) 神

<東洋醫學大辭典>

靈魂通悟也。「素問八正神明論」請言神。神乎神。耳不聞。目明心閉而志先慧然獨悟。口勿能言俱視獨見適若昏昭然獨明。若風吹雲故曰神。

水穀之精氣也。有形可見者爲精。無形可見者爲神。

<中醫名詞術語選釋>

“神明”或“神”是指高級中樞神經機能活動。說明前人對心的理解包括中樞神經系統的功能內。人體臟腑氣血在心的這種中樞神經系統活動的影響下，進行統一協調的生理活動。

<東醫精神科學>

神은 精神이며 意識, 知覺, 運動 等の 生命活動全體를 統帥하는 最高級의 領域이다. 神의 物質的 基礎는 精이다. 神의 存在는 사람의 生命活動力을 指稱하는 것이다.

<中國漢方醫學叢書>

心은 人體의 生命活動의 主宰이며, 臟腑中에 있어서 重要な 地位를 占하고, 一切의 精神意識思惟는 모두가 心의 機能에 歸하는 것이다.

“素問”의 宣明五氣論에 “心은 神을 藏한다.”라든지 素問의 六節藏象論에 “心은 生之本, 神의 變하는 곳이다.”라 했다.

<臟腑證治與用藥>

所謂 “神” 是精神意識以及生命活動力的體現. “心藏神”의 含意有二: 狹意而論 “神” 是指一切精神意識活動. 廣意上 “神” 是魂, 魄意, 志, 思, 慮, 智等精神意識聰明才智活動的綜合表現.

<臟象概說>

祖國醫學把大腦皮質의 精神意識和思惟活動歸屬於心, 如「素問·靈蘭秘典論」說“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神明, 即指人的精神活動和思想意識的表現.

3) 意

<東洋醫學大辭典>

「靈樞本神篇」心有所憶謂之意. 「又」脾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悵亂, 四肢不舉. 毛悴色夭, 死於春.

<中醫名詞術語選釋>

「素問·宣明五氣篇」“五臟所藏…脾藏意.”意, 指意念, 是一種思維活動. 「靈樞·本神篇」“心有所憶謂之意.”

神과 唯識學의 相關性에 관한 문헌적 고찰

<東醫精神科學>

意는 意識, 回憶이며 “心有所憶謂之意.”

<臟腑證治與用藥>

所謂 “意” 是思維活動表現形式之一. 「千金方」云“脾臟者 意之舍. 意者存憶之志也. 爲諫議大夫, 并四臟之所受. 心有所憶謂之意 適之所存 謂之志, 四志而存變謂之思, 田思而遠慕謂之慮, 田慮而處物謂之智” 這些思維活動 皆爲臟腑功能的表現.

4) 魄

<東洋醫學大辭典>

精神中之濁質也. 「素問六節藏象論」夫肺者氣之本, 魄之處也. 「湯液醪醴論」津液充郭其魄獨居. 「靈樞本神篇」竝精而出入者謂之魄. 「又」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 「禮」體魄則降按魄爲人身精神之一種. 比之靈魄則重濁. 比之肉體則簡單.

<中醫名詞術語選釋>

「素問 宣明五氣篇」“五臟所藏…肺藏魄.”魄屬於精神活動的一部分. 「類經·臟象類」指出“魄之爲用, 能動能作痛痒由之而覺也.”說明人體一些如覺和動作是魄作用的結果.

<東醫精神科學>

魄은 精神活動의 一部分이다. “魄之爲用 能動能作痛痒由之而覺也.” 魄은 本能的인 感覺과 動作을 說明할 수 있으니, 耳는 聽覺을, 目은 視覺, 皮膚의 冷熱과 痛痒感覺, 手足인 四肢의 動作과 初生兒의 吸乳動作내지 啼器等은 모두 魄의 範圍이다.

5) 志

<東洋醫學大辭典>

「靈樞本神篇」意之所存謂之志. 「又」盛怒而不止則傷志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俯仰 毛悴色夭 死於季夏.

<中醫名詞術語選釋>

「素問·調經論」“腎藏志”志古通誌，指記憶力，因腦和髓均為腎精所化。故腎虛患者 每多健忘一說“志”有專意而不移的意思。

<東醫精神科學>

志는 意識과 經驗의 存在이다.

“意之所存謂之志。”意와 志의 活動은 人間의 特有한 機能이며, 出生後에 계속하여 발전하는 것이니 神明이라 하여 分析하고 綜合하는 活動을 하는 總體이다.

<臟腑證治與用藥>

腎主藏精，精生髓。髓分骨髓和脊髓，脊髓直接和腦相通。「靈樞·海論」說“腦為髓之海。”明確指出 腦由脊髓聚而成。古人早已發現，腦有主持精神意識活動的功能 「本草綱目」“腦為元神之府”「醫林改錯」“靈机記性不在心在腦…”。可是腦髓只有在腎精的滋養化生下，才能發揮正常功能。

□ 資料 2. 前六識의 概括

<佛敎辭典>

「識」은 了別하는 뜻. 境界를 대하여 認識하는 마음의 작용. 心王에만 말하고, 心所는 別個로 함. 이에 六識. 八識. 九識이 있다.

<織田佛敎大辭典>

識者心也. 由心集起綵画爲主之根本故經曰唯心. 分別了達之根本故論稱唯識.

「唯識論七」唯識言有深意趣識言總顯一切有情各有八識六位心所. 所變相見. 分位差別及彼空理所顯眞如. 識自相故. 識相應故. 二所變故. 三分位故. 四實性故. 如是諸法皆不離識.

<初期唯識思想의 淵源과 阿賴耶識成立에 대한 研究>

阿毘達磨品類足論 卷一의 辯事品第一에 “心

云何. 謂心意識, 此復云何, 謂六識身, 即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 心所法云何, 謂若法心相應, 此復云何, 謂受想思觸作意欲勝解念定慧信勤尋何效逸不效逸善根不善根無記根.”

阿毘達磨集論에 “何等爲識, 謂六識身,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 何等眼識, 謂依眼綠色了別爲性…何等意識, 謂依意緣法, 了別爲性.

<唯識思想研究>

第六意識을 비롯한 六識을 外境에 向하여 作用하는 心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識도 앞에 있는 七識이 熏습한 種子와 우리의 肉體의 기관인 眼根, 耳根, 舌根, 身根, 鼻根등 五根과 法界의 器世間을 상대로 하여 반연하는 機能을 한다고 하였다.

百法明門論에 “第一心法略有八種 一眼識 二耳識 三鼻識 四舌識 五身識 六意識 七末那識 八阿賴耶識云云.”

<俱舍論 唯識論>

眼, 耳, 鼻, 舌, 身, 意의 六識은 第七, 第八의 二識에 比하면 麤細에 걸쳐 境을 了別하는 作用이 勝하기 때문에 이것을 第三 了別境能變이라 한다. 이 가운데 眼, 耳, 鼻, 舌, 身의 五識은 各各 五根으로써 所依로 하여 色, 聲 등 五塵의 境으로써 各各 所緣으로 해서 다섯가지 事가 같으므로 이것을 모두 前五識이라 稱한다.

<唯識學研究>

識의 六種差別.

六 種	{	眼識 — 眼根 — 色境
		耳識 — 耳根 — 聲境
		鼻識 — 鼻根 — 香境
		舌識 — 舌根 — 味境
		身識 — 身根 — 觸境
		意識 — 意根 — 法境

<六識> <六根> <六境>

<佛敎의 心屬心理>

前五識이 作用하는 장소.

眼識 - 眼根 - 意識 - 末那識 - 阿賴耶識
 耳識 - 耳根 - 意識 - 末那識 - 阿賴耶識
 鼻識 - 鼻根 - 意識 - 末那識 - 阿賴耶識
 舌識 - 舌根 - 意識 - 末那識 - 阿賴耶識
 身識 - 身根 - 意識 - 末那識 - 阿賴耶識

그러면 前五識은 어떤 마음이라고 포착되고 있을까. 前五識이란 요즈음 말로는五官이라고 부르는 感覺機能이다.

<成唯識論>

論曰此識差別總有六種。隨六根境種類異故。謂名眼識乃至意識。隨根立具五義故五謂依發屬助如根。雖六識身皆依意識轉。然隨不共立意識名。如五識身無相濫過或唯依意識故名意識。辨識得名心意非例。

<俱舍論·唯識論>

五根, 根이란 勝用이 增上한 힘이 있어 物을 生한다는 뜻이다. 眼, 耳, 鼻, 舌, 身의 五根은 勝用은 힘이 있어 能히 眼등의 五識으로 하여금 色등의 五境을 緣取케 하므로 根이라 하니 五識의 所依가 된다.

五境, 五塵이라고도 한다. 五根 및 五識의 對境이니 色, 聲, 香, 味, 觸의 五法이다.

<唯識所依經論上の 心識論>

一心의 內容을 阿賴耶·末那·意識 및 眼等の 前五識과의 八識이라 分類할 뿐 아니라 阿賴耶는 積集爲性의 識이요, 末那는 思量爲性의 識이며, 意識은 分別爲性의 識이요 前五識은 了別境爲性의 識이라 定義하여 있다.

□ 資料 3. 前六識의 分類

1) 眼識

<佛敎辭典>

五識의 하나. 모양, 빛깔등을 分別하고 아는 작용, 視覺.

神과 唯識學의 相關性에 관한 문헌적 고찰

<佛敎의 心層心理>

眼識은 所依의 면에서 말하면, 眼根을 所依로 하며 色境을 所緣으로 하여 작용한다. 눈의 기관을 장소로 하면서 色彩를 보고 있다는 그것이 眼識이다.

<俱舍論·唯識論>

眼識의 對境은 色으로서 三種이 있으니 顯色, 形色, 表色이다. 顯色이란 드러난 色法이니 實體가 差別된 것으로 靑, 黃, 赤, 白등이며, 形色은 積集和合된 色의 形類로서 長短, 方, 圓등이고, 表色이란 表示하는 바 色의 業用이 差別된 것이니 取, 捨, 屈, 伸등이다.

<唯識所依經論上の 心識論>

眼識

1. 自性 - 依眼了別色
2. 所依 - 俱有依(眼根)等無間緣依(意識)種子依(阿賴耶識)
3. 所緣 - 色, 有見有對니 顯色과 形色과 表色이다.
4. 助伴 - 俱有相應의 諸心所有法, 즉 意觸, 受, 想, 思 등이다.
5. 作業 - ㄱ. 唯了別自境所緣 ㄴ. 唯了別自相 ㄷ. 唯了別現在 ㄹ. 唯了別-剎那 ㅁ. 隨意識轉 ㅂ. 能取愛非愛果

2) 耳識

<佛敎辭典>

6識·8識의 하나. 耳根에 의하여 생겨서 소리를 듣고, 悲喜苦樂등을 分別하는 정신작용, 聽覺.

<佛敎의 心層心理>

耳識의 所依는 귀의 기관이며, 물론 거기에 도 가청범위라는 인식의 한계는 뚜렷이 있다.

耳識의 所緣은 聲境이지만 이것은 매우

複雑하게 분석된다.

耳識 {
 有執受 < 有情名
 非有情名
 無執受 < 有情名
 非有情名

<俱舍論·唯識論>

聲은 耳識의 對境이니 三種이 있다. 첫째, 內聲이니, 곧 有情들의 語聲과 둘째, 外聲이니, 곧 風林등의 音聲과 셋째, 內外聲이니, 곧 拍手·鼓舞등의 音聲이다. 또 三種이 있으니 可意聲, 곧 마음에 따르는 可愛의 聲과 不可意聲, 곧 마음에 어기는 忍嗟 등의 不可愛의 聲과 俱相違聲, 곧 順違를 떠난 音聲이다.

<唯識所依經論上的 心識說>

耳識

1. 自性 — 依耳了別聲.
2. 所依 — 俱有依(耳根)等無間緣依(意根)種子依(阿賴耶識)
3. 所緣 — 聲. 無見有對니 如諸聲등
4. 助件 > 同前識
5. 作業

3) 鼻識

<佛敎辭典>

六識의 하나. 코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냄새의 좋고 나쁜 것을 分別하는 心識. 냄새를 맡는 기관이니 곧 嗅覺.

<佛敎의 心層心理>

香境은 鼻識의 소연이다. 好香, 惡香, 等香 不等香의 4가지로 分類하는데, 好惡은 좋은 香氣와 그렇지 않은 香氣, 等香과 不等香은 자기에게 資養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며, 分類의 基準을 좀 달리하는 것 같다.

<俱舍論·唯識論>

香, 鼻識의 對境이니 好·惡·平等의 三種이다.

<唯識所依經論上的 心識說>

鼻識

1. 自性 — 依鼻了別香
2. 所依 — 俱有依(鼻根)等無間緣依(意根)種子依(阿賴耶識)
3. 所緣 — 香. 無見有對니 如好·惡·平等등香
4. 助作 > 同前識
5. 作業

4) 舌識

<佛敎辭典>

舌根: 五根의 하나. 舌識으로 하여금 맛을 알게 하는 기관. 곧 혀를 말함. 맛을 알고 맡을 하는 根本이므로 根이라 함.

<佛敎의 心層心理>

舌識의 所緣은 味境이다. 이것은 쓴것, 신것, 잔것, 매운것, 달콤한 것, 담백한 맛의 여섯가지로 나눈다. 맛의 일종으로 담백한 맛이 들어있는 것은 제법 멋있는 分類라 하겠다.

<俱舍論·唯識論>

味, 舌識의 對境이니 苦, 酢, 辛, 鹹, 淡, 甘의 六種이다.

<唯識所依經論上的 心識說>

舌識

1. 自性 — 依舌了別味
2. 所依 — 俱有依(舌根)等無緣依(意根)種子依(阿賴耶識)
3. 所緣 — 味. 無見有對니 如苦·酢·辛·甘味 등
4. 助件 — 同前識
5. 作業 — 同前識

5) 身識

<佛敎辭典>

身根. 五根의 하나. 身識으로 하여금 接觸을 감각하게 하는 기관. 몸.

<佛敎의 心層心理>

身識의 所緣은 觸境이다. 피부로써 接觸하여 아는 대상이며 뜨겁다, 차다, 미끄럽다, 흔들흔들한다 등이며, 실제로 만져서 아는 대상이다.

<俱舍論·唯識論>

觸; 身識의 對境이니 堅, 濕, 煖, 動의 四種이 있다. 이를 地, 水, 火, 風인 觸處의 四大種이라고 한다.

<唯識所依經論上의 心識說>

身識

1. 自性 - 依身了別觸
2. 所依 - 俱有依(身根)等無間緣依(意根)種子依(阿賴耶識)
3. 所緣 - 觸. 無見有對니 如地, 水, 火, 風 등
4. 助伴 > 同前識
5. 作業

6) 意識

<初期唯識思想의 淵源과 阿賴耶識成立에 대한 研究>

品類足論에 “意界云何. 謂意於法已正當了. 及彼同分法界云何. 謂法爲已正當了. 意識界云何謂意及法爲緣生意識. 如是意爲增上. 法爲所緣. 於意所識法. 諸已正當了別. 及彼同分.”

顯揚論 卷十七에 “所依止因者 謂由阿賴耶識 所執色根爲依止故. 五識身轉非無執受. 又由有此識故 得有意根 由此意根爲止故 意識得生 譬如依止眼等五種色根 五識身轉非無五根 意識亦爾 非無意根.”

神과 唯識學의 相關性에 관한 문헌적 고찰

<唯識思想研究>

意識은 外境을 向하여 法境을 分別하는것을 分別事識이라 하는데, 항상·前五識과 關聯을 갖게 된다. 가령 名言習因을 顯現할 때 前의 眼識이 色相을 發見한다면 즉시에 意識이 能見의 眼識을 緣하여 分別하며, 取着한다는 것이다.

唯識學에서 意識이 眼識等 前五識과 함께 外境을 반연한다는 뜻에서 五俱意識이라는 別名으로 이름하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佛敎辭典>

意識; 六識의 하나. 意根에 의한 識이란 뜻. 곧 第六識, 第七識에 依屬한 識, 物心의 모든 현상의 총상을 了別함이 그 性能. 意識은 無想天에 태어날적, 無想定을 얻을적, 滅盡定에 들적, 熟睡時, 悶絕時를 除하고는 다른 때에는 언제든지 起存.

<佛敎의 心層心理>

意識은 知性, 感情, 意志등의 領域으로, 그것이 所依라 함이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 본다, 듣는다 등과 같은 감각작용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더우기 그 意識은 밑바닥에 末那識이라는 自我中心의인 생각에 지탱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그 깊숙한 곳에 깊은 물같은 自己-阿賴耶識이 있으며, 그 阿賴耶識에 의해서 지탱되어 있는 것이다.

<俱舍論·唯識論>

法處所攝色; 第六識의 所緣境인 法處가운데 攝屬되는 色法이니 極略, 極迥, 受所引, 定所引, 遍計所起의 五種이 있다.

<唯識所依經論上의 心識說>

意識

1. 自性 - 心意識 心謂阿賴耶識 意謂末那 識謂前六識

2. 所依 - 無間緣依(依根)種子依(阿賴那識)

3. 所緣 - 一切法, 즉前五識不共의 所緣은 受, 想, 行蘊·無爲, 無見無對色(無表)六內處及一切種子

4. 助伴 - 作意, 觸, 受, 想, 思, 欲, 勝解, 三摩地, 慧 등

5. 作業 - 能了別自境所緣 了別自共相了別玄來今世了別剎那 등

Ⅲ. 總括 및 考察

精神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思考하고, 行動하는, 즉 우리가 體驗으로 生活하는데 있어 體驗의 手段이 되는 귀나 눈, 或은 손이나 발이 아니고 좀더 根本的이고 도 本質的인 主體가 되는 機能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主體가 되는 機能은 단순한 能動體 或은 受動體가 아니며, 意識함으로써 人格的으로 統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精神에 있어서 知覺, 思考, 情志作用, 意識性 및 人格的 統一 등은 가장 重要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거의 不可缺이란 것이 아니고 生物一般의 그 特有한 目的을 向해 最低限까지를 取하기 위하여 不要한 作用은 省略되거나 或은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¹⁾

精神은 複雜한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 한가지는 身體로 向한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社會的 環境에 向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身體와 社會를 매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精神은 단순히 外界를 知覺하는 것 뿐 아니라 同時에 外界에 대해 무엇인가의 感情을 가지고 意欲을 생기게 하며, 다시 그 事物의 意味를 생각하여 그것과 다른 事物 或은 自己와의 關係 및 目的등을 판단하게 한다. 따라서 事物에 대해 量的 或은 質的인 人정을 할뿐 아니라 그 以上 그 事物의 關係, 目的, 價値 등의 判定이 重要한 精神의 임무이다.¹⁾

우리들이 冊을 본다, 꽃을 본다, 음악을 듣는다, 꽃의 냄새를 맡는다. 이러한 매일의 經驗을 反省하여 보면 <본다> <듣는다> <맡는다> 등의 作用은 그것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며, 보고 듣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판단하며 그것에 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며 그것을 계기로 하여 다른 무엇을 연상하는 것 같은 作用이 반드시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는 작용은 생각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하는 또 하나의 작용과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보며 듣는 작용과 다른 작용이 분석될 수 있다.¹⁵⁾

그러므로 前六識은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을 말하며, 眼識이란 대상이 色境이며, 色境은 구체적으로 色彩이다. 시각은 색채만을 인식한다고 생각하며, 색채는 靑, 黃, 赤, 白의 4가지로 分類한 것으로 이것을 통한 인식을 말한다

耳識의 대상인 聲境이 가청범위라는 인식의 한계가 뚜렷하며, 여기에는 有執受인 生物과 無執受인 無生物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통한 인식을 말한다.

鼻識의 대상은 香境이며, 好香, 惡香, 等香 不等香의 4가지로 分類한 것으로 이것을 통한 인식을 말한다.

舌識의 대상은 味境이며, 이것은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담백한 맛의 여섯가지로 나눈 것으로 이것을 통한 인식을 말한다.

身識의 대상은 觸境이며, 피부로써 接觸하여 아는 것으로 뜨겁다. 차다. 미끄럽다. 흔들흔들한다. 등이며, 실제로 만져서 아는 것을 통한 인식을 말한다.

意識은 知性, 感情, 意志, 想像力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包括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보통 다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前六識은 韓醫學上 基本이 되는 五臟神과 構造的인 면에서 聯關性이 많다.

이를 살펴보면, 內經에

“肝開竅於目, 肝臟魂, 隨神往來者謂之魂
心開竅於舌, 心臟神, 兩精相博謂之神

脾開竅於口，脾藏意，心有所憶謂之意
 肺開竅於鼻，肺藏魄，并精而出入者謂之魄
 腎開竅於耳，腎藏志，意之所存謂之志”

라 하였으므로 魂은 眼識, 神은 身識, 意는 舌識, 魄는 鼻識, 志는 耳識과 相關性이 있으며, 第六識인 意識은 前五識을 總括하는 心藏神과의 相關性을 살펴볼 수 있다.

唯識學은 八識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本考에서는 前六識을 中心으로 살펴보았으며, 第七末那識과 第八阿賴耶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IV. 結 論

韓醫學에 나타나는 五臟神과 佛教 唯識學의 八識中 前六識에 관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眼識이란 視覺을 통한 인식작용을 말하며, 肝藏魂과 相關性이 있다.
2. 身識이란 觸覺을 통한 인식작용을 말하며, 心藏神과 相關性이 있다.
3. 舌識이란 味覺을 통한 인식작용을 말하며, 脾藏意와 相關性이 있다.
4. 鼻識이란 嗅覺을 통한 인식작용을 말하며, 肺藏魄와 相關性이 있다.
5. 耳識이란 聽覺을 통한 인식작용을 말하며, 腎藏志와 相關性이 있다.
6. 意識이란 前五識을 통한 인식작용을 말하며, 知性, 感情, 意志등의 영역으로, 心藏神이 五藏神을 總括한다는 면에서 意識과 相關性이 있다.

參 考 文 獻

1. 柳熙英：東醫精神科學，慶苑文化社，pp. 6 ~ 8, 1983.
2. 謝觀：東洋醫學大辭典，高文社，1980，pp. 103, 315, 564, 846, 971, 1018.

神과 唯識學의 相關性에 관한 문헌적 고찰

3. 中國中醫學院：中國漢方醫學叢書，東洋綜合通信出版部，pp. 57 ~ 65.
4. 邵念方：臟腑證治與用藥，山東科學技術出版社，pp. 2 ~ 3, 70 ~ 73, 148 ~ 155, 218 ~ 225, 1983.
5. 盛增秀，王琦：臟象概說，上海科學技術出版社，pp. 24 ~ 47, 1984.
6. 中醫研究院：中醫名詞術語選釋，人民衛生出版社，pp. 22 ~ 55, 1978.
7. 吳亨根：初期唯識思想의 淵源과 阿賴耶識成立에 대한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pp. 11 ~ 13, 116 ~ 119, 1986.
8. 吳亨根：唯識思想研究，佛教思想社，pp. 444 ~ 447, 125, 1983.
9. 深浦正文：唯識學研究，永田文昌堂，pp. 302, 昭和 38 年.
10. 雲虛：佛教辭典，東國大譯經院，pp. 347; 460, 509, 561, 670, 703, 715 ~ 716.
11. 織田得能：織田佛教大辭典，大藏出版社，pp. 1764, 昭和 58 年.
12. 金東華：唯識哲學，寶蓮閣，pp. 244 ~ 258, 1973.
13. 太田久紀：成唯識論，中山書房，pp. 107, 昭和 52 年.
14. 青木亨：新版佛教哲學大辭典，聖教新聞社，pp. 1808, 昭和 60 年.
15. 太田久紀：佛教의 心層心理，玄音社，pp. 77 ~ 107, 1985.
16. 望月：望月佛教大辭典，佛教大辭典發行所，pp. 4901, 昭和 11 年.
17. 慈明梶川乾堂：俱舍論，唯識論，法輪社，pp. 173 ~ 174, 1979.
18. 金東華：唯識所依經論上의 心識說，東國大佛教學報 5 輯，pp. 41 ~ 45, 1968.
19. 黃晟起：圓測의 唯識學觀에 관한 研究，東國大佛教學報 9 輯，pp. 14 ~ 15, 1972.
20. 金東華：大乘論部上의 心識說，東國大佛教學報 6 輯，pp. 8 ~ 9, 1969.
21. 睦楨培：根本識研究，東國大大學院，pp. 4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제1집 1990.
J.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 1964.

22. 元義範：現代 危機意識의 唯識的 克服,
釋林論集 11 輯, pp. 40 ~ 46, 1977.
23. 吳亨根：唯識學上的 第六意識研究, 東國大
佛教學報 第二十三輯, pp. 70 ~ 75, 1985.
24. 吳亨根：六足論의 心分思想에 대한 考察,
東國大 論文集 第十六輯, pp. 16 ~ 20,
1985.
25. 全明星：唯識綱要, 寶蓮閣, pp. 40 ~ 43,
1979.
26. 長尾雅人：中觀と唯識, 岩波書店, pp. 457
~ 465.